주의 봉헌 축일
제1독서 : 말라 3,1-4
제2독서 : 히브 2,14-18
복 음 : 루가 2,22-40

숲정이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루가 2,40)

강 론

희생을 통한 봉헌

김희남 신부/신태인 천주교회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일을 한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에서 나오는 빛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용하곤 한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어울리는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 봉헌 축일에 교회에서는 제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데에 쓰여지는 초을 축성하는 예절을 한다. 이는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만나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우리 자신을 태워 주님 안의 또 다른 불길이 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전제되어진다. 촛불과 같이 스스로가 불타야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더 많은 희생은 더 큰 봉헌이 이루어지게 한다.

요즈음 성소자들을 보면 옛날과 다르게 외아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모님들의 대단한 각오와 희생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사회사업에 여생을 보내기도 한다. 또 자신이 일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공익을 위해 아낌없이 봉헌하는 분들도 본다. 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봉헌하는 삶을 잘 보여준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절실하고 의미있는 봉헌은 깨끗하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바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희생은 오히려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질 것이다.

소 리

분노할 때 분노를

새해에는 보다 살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온 세상 사람들은 바란다. 아주 거창한 희망을 품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덜 허탈해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세상을 바랜 것이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지나는 지금, 우리는 심한 배신감과 회의감, 그리고 분노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노동법과 공작정치에 악용되어 온 안기부법을 군사작전 하듯이 꼭두새벽에 날치기 처리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의 재창출과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기에 국민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없는 사람은 단 돈 몇 만원을 대출받으려 해도 온갖 까탈을 부리는 은행이, 권력 핵심부의 압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천문학적인 5조원을 대출해 주었고 끝내 부도가 났다. 그런데 부실기업에 무제한적인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경제 위기를 들먹이며 사건의 무마에 메달리고 있다.

새해에는 덜 절망하고 회의하고 분노하기를 바랬던 우리는 지금, 더 큰 분노에 빠져 있다. 그 동안 분노를 안으로 삭여 온 우리의 인내를 털고 일어나, 이제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이 되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박

숲정이 산책

돈의 흐름

2000년 대희년

성서 통독반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1. 2000년 대희년 준비 '그리스도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교우들이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이미 성서 읽기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성서 통독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각 본당에서 그룹별로 성서 통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성서 통독반' 운영을 제안한다.

2. 과거에 성서 통독을 결심하고 실행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성서를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바쁜 일과 속에서 성서 읽기를 위해 20여분을 할애한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 읽기를 시작해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며 지속적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성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성서를 읽으면 많은 분심을 가지게 된다. 하루에 1시간 통독을 목표로 삼은 경우, 성서 읽기를 시작한 지 20여분만 지나도 아직도 몇 분이나 남았는가? 하고 확인하느라고 성서 읽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하루에 20면을 읽자고 목표를 세우게 되면, 대여섯 페이지만 읽어도 아직도 몇 페이지를 더 읽어야 하는가에 신경이 쓰여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상이다. 어떻게 하면 정신을 집중해서 하느님 말씀을 정성껏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 이런 분들을 위하여 '성서 통독반'을 제안하고 싶다. '성서통독반'이란 다름아닌 그룹별로 성서를 읽는 것을 말한다. 각 본당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성서 통독반'을 운영하기 바란다. '성서 통독반'은 1개반이 대략 7~8명 정도의 선이 적당하다. 20여명이 모였다면 3개반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성서를 읽기 시작하기 전 '봉사자'는 읽어야 할 성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교구 사목국에서는 성서 73권에 대한 간략한 안내서를 마련 중이다. 그리고 나서는 각 그룹별로 「성서 통독 노트」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읽으면 된다.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읽게되는데 한 사람이 한 장씩 읽거나 반 장씩 읽으면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침묵이며, 침묵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별로 성서를 읽을 경우에 읽고난 후 느낌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강조되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성서를 읽는 동안 내내 분심을 가질 수 있다. 성서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려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나눔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잘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서를 읽으면서 나눔을 가지고 싶다면, 기도 형식의 나눔을 권장하고 싶다.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나 느낌을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한다면, 불필요한 얘기들이 절제되면서 알찬 내용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서로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

4. 그룹별 성서 읽기에 들어가기 전 성서를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당에서는 1일 성서 통독 피정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겠다.

헤레나 화장품
김정권, 방 헤레나
효자점(효자주공3단지 앞)
☎ 223-2630
인후점(거성프라자 1층)
☎ 242-3671
두산점(두산프라자 1층)

K랜드 눈 썰매장
• 순수와 꿈의 나라
• 주간(오전10시~오후4시)
야간(오후5시~오후9시)
윤 병 순(요 셉)
김 혜 경(레지나)
금구↔원평 중간 목우촌 앞
☎ (0658) 42 - 0365

풍 년 꽃 집
근조, 결혼, 회갑, 생일, 개업
학교, 동서양란, 화분, 꽃바구니
배달해 드립니다.
강 순 자(세라피나)
☎ 84 - 8672, 85 - 636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김태우(알폰소)·황진숙(안젤라)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 88 - 7717~8

잠 깐

새 사제들의 인사

신학교에 입학한 지 적게는 6년, 많게는 11년이란 시간을 준비하고 이제 주님의 제단에서 찬미의 제사를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자비와 교구 신자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사히 신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교구 신자분들의 알게 모르게 바쳐 주시는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부터 주름진 할머니들의 손에 이르기까지 바쳐 주신 기도에 의해 저희들이 주님의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신들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사제, 교구 신자들을 위한 사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을 서품하여 주신 교구장 이병호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추천해 주신 아버지 신부님과 영적·지적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신 교수 신부님, 본당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 은인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기도해 주신 교구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년 1월 30일 서품 받은 새 사제들 올림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교구청 휴무:2월7일~8일 설관계로
2. 성서교실 개강:이리-2월17일(월) 오전 9시30분 미사
   군산-2월18일(화) 오전 9시30분 미사
   전주-2월20일(목) 오전 9시30분 미사
3. 사회복지 월례미사:2월3일(월) 오전 10시30분, 가톨릭센터
4. 레지오 1차 영성피정:2월4일(화) 천호 피정의 집
5. 일본어 초급반·중급반 개강:2월24일(월) 오후2시, 가톨릭센터
   회비-월 5,000원, 강사-이은자(엘리사벳)
6. 기억할 사제:2월5일 소순형(베르나르도) 신부 2주기

요십이 (1224) 김병오

직 원 모 집

- 모집부분:사무장 ○명, 사무원 ○명
- 제출서류:이력서, 교우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 1통
- 서류마감:2월10일(월)
- 문의 ☎ 251-1911(금암동 성당)

팔복성모 어린이집 교사모집

- 대상:6명(어린이집 보육교사)
- 자격:보육교사 자격소유자
- 기간:2월3일~13일까지
- 제출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97학년 졸업예정자 포함),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각 1통
- 접수처:천주교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 84-5290)

(주)이삭온돌침대「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전남북 총판

박천운(베드로),임선재(데레사)

☎ (0652) 251 - 9836~7
호출기 015 - 675 - 9824
휴대폰 011 - 651 - 7124

김회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돈보스꼬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 모집부분:기계과(선반 ○○명 및 기계조립 ○○명) • 자격:고졸 및 중졸 만 15~23세(군필 및 면제자) • 교육기간:1년 • 원서교부 및 접수:2월19일까지(중졸), 2월28일까지(고졸) • 혜택:교육과정 및 기숙사비 무료, 전원 취업보장, 전원기숙사 생활, 종교 및 인성교육 등 중졸학력 소지자 방송통신고 전원 입학, 전원 컴퓨터 교육 • 문의:본도스꼬 청소년 센터 (02)833-4010, 4085

- 초대합니다 -

평화동 성당 바자회

·일시 : 5월2일~5일
·장소 : 평화동 성당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주님, 저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1. 모임 안내 : ①꾸리아-교중미사 후
②구역반장 회의-5일(수) 전 10시
③성서교실-6일(목) 전 10시
2.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중
3. 설 합동 위령미사 : 8일(토)-새벽미사(전 6시), 교중미사(전 10시)
특전미사(후 6시)
4. 애령주일 : 9일(주일), 애령헌금 납부 및 애령회 임원모임
5. 재의 수요일 : 12일(수) 성지가지 회수하고 있음.
6. 새신자 피정 : 13일(목), 천호피정의 집, 회비-1만
※3년이내의 영세자 참가바람
7. 구역반 성화 : 2월은 제일 구역 성화의 달임
8. 구역반장 임명 : 교회를 위한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9. 환영! : 이 바오로 수녀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10. 금주 전례 : 해설-이홍자, 독서-김길환(스테파노) 부부
예물봉헌-김용권(요한) 가정
11. 차주 전례 : 해설-박영춘, 독서-이재철(베드로) 부부
예물봉헌-김수전(토마스) 가정

□지난주 봉헌금 : 1,401,900원 □교무금 : 2,160,000원
□2차 헌금 : 714,49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이방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루가 2,32)
⊙오늘 : 빈첸시오회비 납부일, 지난해 교무금을 정리합시다.
1. 금주 모임 : ① 요아킴회-공식미사 후, 4회의실
② 안나회-공식미사 후, 유아실
2. 주간 모임 : 사목회-5일(수) 후 8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울뜨레야-공식미사 후, 4회의실
※차주-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일
4. 설 합동 위령미사 : 8일(토) 전 10시, 후 7시(후 4시미사없음)
5. 예비자 교리 : 화요일(직장반)-후 8시, 4회의실
목요일(주부반)-전 10시, 4회의실
6. 성서 공부 : 매주 목요일 전 10시, 4회의실
7. 성지가지 회수 : 성지가지 9일(차주)까지 가져 오시기 바람
※재의 수요일 미사-12일(수) 후 7시 30분 (전 10시 미사 없음)
8. 전입가정 환영 : 하종철(라파엘) T.252-6230, 현대A 101/1302
이봉애(모니카) T.77-6149, 성원A 106/1102
김광식(보나벤뚜라) T.77-2018, 비사벌A 105/406
송정희(글라라) T.75-4060, 동아A 107/1504
배석환(엘리아) T.74-5542, 동아A 103/304
9. 독서 : 금주(새벽)-①최병래 ②손화례, 차주-①소재성 ②송순자
(공식)-①이철주 ②문복례, 차주-①류인걸 ②서영미
10. 미사 안내 : 금주-샛별의 모후Pr., 차주-인자하신 모후Pr.
□지난주 봉헌금 : 1,463,420원 □교무금 : 2,685,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주여 세상을 떠난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새 성전 신축위한 묵주기도 봉헌 : 소계-4,759단, 누계-305,402단

1. 모임 : ①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재대회-제대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③구역, 반장 모임-7일(금) 어머니미사 후
2. 설 합동 위령미사 : 2월 8일은 오전 10시 30분
※미사예물은 사무실에
3. 재의 수요일 : 2월 12일(미사중에 재의예식)
※성지가지 사무실로 제출바람
4. 유아세례 : 2월 16일(일) 공식미사 후
※사무실에 신청바람
5. 금주 전례 : 해설-윤숭렬, 독서-①이강윤 ②전현진
6. 설날 전례 : 해설-오은표, 독서-①심영배 ②송화자
7. 차주 전례 : 해설-김미숙, 독서-①하진호 ②강정자
8.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 293,000원
9. 청소봉사 : 4구역 전체

□지난주 봉헌금 : 651,600원 □교무금 : 1,159,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만군의 주님이야말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1. 금주 모임 : ①구역반장회의-낮미사 후
②초봉헌-사무실에 접수 바람
2. 성서교실 : 5일(수) 후 8시 3. 봉성체 : 6일(목)-사무실에 신청 바람
4. 휴무 : 7일(금)-사무실
5. 설 재축일 미사 : 8일(토) 전 10시 ※초·중고 미사 없음
6. 차주 모임 : ①안나회, 자모회, 요셉회, 반석회-낮미사 후
②편집분과 모임-저녁미사 후
7. M.B.W 우리시대의 영성(낮과정) : 19일(수)~21일(금)
※많은 참여바람
8. 예비자 입교식 : 16일(일) 낮미사 ※예비자 인도봉헌에 적극적인 협조바람 9. 구역미사 : 14일(금)-우성근영2반
10. 영세자 고백성사 : 5일(수) 후 7시 30분
11. 개정된 미사곡 성가연습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12. 천상의 모후 Cu. 임원 개편 : 먼저 수고하신 꾸리아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장-이상섭(대건 안드레아), 부단장-김영주(우술라) 서기-송정자(젬마), 회계-이건(요셉)
13. 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6일까지 사무실
14. 신축헌금 신입현황 : 259세대. 5억5천9백3십3만원
15. 청소 봉사 : 6일(목)-은총의 중계자Pr.
16. 금주 전례 : 새벽-유희정, 낮-정준성, 저녁-정인자
17. 차주 전례 : 새벽-곽순옥, 낮-최정순, 저녁-이영숙

□지난주 봉헌금 : 932,270원 □교무금 : 2,385,000원
□2차 헌금 : 329,37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F A X 223-3821 수 녀 원 223-3822 사목회장 이 병 선

⊙금주 성서통독 : 루가복음
⊙오늘은 주의 봉헌 축일 : 모든 교우가 예비자나 냉담자를 한 사람씩 봉헌합시다. (매미사 봉헌시간에)
1. 금주 모임 : ①선교특위-오늘(일) 후 2시
②사목회장단-오늘 10시 30분 미사 후
③성체회봉사자-4일(화) 전 11시
④구역봉사자-5일(수) 전 10시 30분
⑤환자봉성체-5일(수) 후 2시부터
⑥안나회, 요셉회-9일(일) 9시 미사 후
2. 차주 모임 : ①성모회-12일(수) 전 11시
②울뜨레야-16일(일) 후 7시미사 후
3. 설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사무실
※설날 미사시간-전 6시, 후 5시(후 3시 미사 없음)
4. 성지가지 회수 : 9일까지 사무실※재의 수요일-12일(수), 금식과 금옥
5. 축 전입! : ①박혜정(아네스)-삼천주공APT 210-201호 T.223-3890
②이선량(사무엘)-쌍용APT1단지 106-403호
6. 다음주 차(茶) 봉사와 미사안내 : 개나리 APT
7. 사목회 부회장 임명 : 한귀석(바오로)-교구 60주년행사 담당
8. 본당 발전헌금 봉헌자 : 조남정(마태오)-십만, 익명-삼십만, 김용택(바르나바)-십만, 김상곤(토마스아퀴나스)-십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감사드립니다 : 수녀원 세탁기 기증(익명)
□지난주 봉헌금 : 1,510,56원 □교무금 : 2,800,000원
□2차 헌금 : 821,91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F A X 226-1044 수 녀 원 223-0715 사목회장 김 규 완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6,995원, 누계-633,977단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를 접수합니다.
1. 금주 모임 : ①천주의 모친Cu.,-공식미사 후
2. 성체강복 : 5일(수) 10시미사 후
3. 주의 봉헌축일(초 축성) : 오늘 공식미사중
4. 설 합동 미사예물(8일) : 선영을 위하여 미사예물을 정성껏 봉헌합시다. ※미사시간-전 10시 30분
5. 성지가지 : 9일까지 회수하오니 협조바람
6. 성령세미나 : 2월 17일(월)~22일(토), 본당, 전신자 대상
7. 신축헌금 봉헌자 : 소병희-3십, 강신호-1십, 김정의-1백
한기영-2십4만, 박영옥-5십, 이명춘-3십, 강희찬-5십, 최낙중-1십
곽정연-3만, 김하수-1백, 장기주-4만, 은종남-2만, 권기순-3만
유춘자-3만5천, 이영자-5만, 조경희-1백
※소계-5백2십4만5천원, 누계-9억3천2백6십7만5천원
8. 폐품 수입 : 소계-45,750원, 누계-5,603,890원
9. 차주 :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 울뜨레야
10. 금주 전례 : 해설-이종표, 독서-①김영길 ②오순자
봉헌 안내-유영균, 강선화 부부
11. 차주 전례 : 해설-이진태, 독서-①김항렬 ②임혜영
봉헌 안내-최규화, 이존순 부부
□지난주 봉헌금 : 1,573,500원 □교무금 : 4,693,000원
□2차 헌금 : 919,250원